

꽃피는 전기차시장...EV신차 속속 출시



현대자동차는 15일 전국 영업점을 통해 18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전국 영업점을 통해 18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쉐보레 볼트 전기차(EV)가 지난 17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3시간만에 올해 도입물량 5000여대를 완판했다. 볼트EV는 당초 15일 사전계약을 시작하려 했지만 계약 폭주로 인한 시스템과부하로, 사전 계약 개시 날짜를 미뤄야 했다.

#.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까지 초소형전기차 1만대를 도입한다. 오토바이에는 우편물량 3kg까지 실을 수 있지만 전기차를 이용하면 100~150kg까지 실을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가 '개화기'를 맞았다. 정부의 보조금이 다소 줄었지만 국내외 완성차브랜드들이 몰려 들어 1회 충전거리 300km 안팎의 전기차를 국내에 대거 출시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각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보증 기간과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전기차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4년 이후 매년 100% 인파의 성장을 보여왔다.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1만3826대가 판매됐다. 정부와 업계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2만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부터 '코나'의 전기차 모델 '코나 일렉트릭'에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2018년형도 함께 예약 판매한다. 최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인 코나일렉트릭은 1회 충전으로 39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항속형 코나 일렉트릭과, 1회 충전으로 2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도심형 코나 일렉트릭 등 2가지 모델을 출시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경쟁 전기차 중 가장 넓은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코나 일렉트릭은 소형

코나·니로 등 1회 충전 300km대 신차 출격 GM 볼트 전기차 3시간만에 5000대 '완판'

SUV와 전기차가 처음으로 결합한 모델로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코나가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아이오닉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아차 역시 올해 7월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니로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같은 소형 SUV 전기차 코나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7932대를 판매하며 부동의 판매 1위를 기록한 아이오닉의 올해 흥행여부도 관심사다. 아이오닉은 지난해 전기차 내수 판매의 57%를 차지하며,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배터리도 평생 무제한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엔 배터리 용량을 늘린 전기차 'SM3 Z.E.'를 지난해 출시, 이달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배터리 용량을 22kWh에서 33kWh로 늘리면서 한번 충전으로 213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한국지엠이 판매하는 쉐보레 볼트EV는 지난해 400대를 선착순 판매해 두시간만에 매진될만큼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10배가 넘는 5000여대를 들여왔지만 3시간 만에 완판됐다.

볼트EV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고강성 경량 차체에 60kWh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했다. 204마력의 최대출력과 36.7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지난해 북미시장 출시와 동시에 '2017 북미 올해의 차' 등 권위 있는 상을 차례로 수상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9일 새 전기차 브랜드 'EQ'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EQ 브랜드의 첫 신차가 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더 뉴 GLC 350 e 4매트릭' 두 대를 전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승용차 기준 1017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승용차 한 대당 무조건 1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차종별 지원금은 ▲GM 볼트 1200만원 ▲현대 아이오닉 N·Q 트림 1127만원 ▲아이오닉 1트림 1119만원 ▲기아 쏘울 1044만원 ▲르노삼성 SM3 1017만원 등이다.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줄었다.

지자체별 차등 지원금은 정액제제가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평균 600선이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전기차 1대당 1600~1800만원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세금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기 '무선청소기' 청소성능 소음·충전시간 비교해보니

무선(스틱형)청소기는 코드선이 따로 없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모델과 가격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업체(유니클레, 다이슨코리아,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삼성전자, 필립스코리아, LG전자)의 9종(고가형 4종, 중저가형 5종)을 대상으로 청소성능(바닥먼지, 바닥물, 큰 이물, 벽모서리), 사용시간, 소음, 충전시간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감전보호) 등을 시험·평가했다.

◇청소성능, 제품별 차이 있고, 일부 제품 청소성능 미흡

(바닥먼지 청소성능) 미쯔비다의 먼지에 대한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최대모드에서 다이슨(SV10), 테팔(TY9086KO), LG전자(S96SPSH) 등 3개 제품, 최소모드에서 테팔(TY9086KO)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형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최대모드에서 5개 전 제품, 최소모드에서 일렉트로룩스(ZB3230P), 테팔(TY8473KL), 필립스(FC6402), LG전자(S86BW)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쯔비다 특세의 먼지에 대한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고가형에서는 최대모드에서 다이슨(SV10), 테팔(TY9086KO), LG전자(S96SPSH) 등 3개 제품, 최소모드에서 LG전자(S96SPSH)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으며, 삼성전자(VS80M8030KR) 제품은 최대모드와 최소모드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형에서는 '매우 우수'한 제품은 없었으며, 최대모드에서 테팔(TY8473KL), 필립스(FC6402)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VS60K6080KD), 일렉트로룩스(ZB3230P), LG전자(S86BW) 등 3

개 제품은 최대모드와 최소모드에서 필립스(FC6402) 제품은 최소모드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용시간, 최대모드에서 제품 간 최대 3.5배 차이

최대모드와 최소모드에서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모드에서 3.5배(6분~21분), 최소모드에서 2배(26분~52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고가형에서는 최대모드에서 테팔(TY9086KO) 제품이 15분, 최소모드에서 삼성전자(VS80M8030KR) 제품이 41분 중저가형에서는 최대모드에서 테팔(TY8473KL) 제품이 21분, 최소모드에서 필립스(FC6402) 제품이 52분으로 사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충전시간, 최대 5배 차이 있고, 안전성 전 제품 이상 없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확인한 결과, 2시간 15분~11시간 56분으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고가형에서는 테팔(TY9086KO) 제품이 2시간 30분, 중저가형에서는 삼성전자(VS60K6080KD) 제품이 2시간 15분으로 충전시간이 가장 짧았다.

애플 '전 세계 존경받는 기업' 1위 선정...삼성 연속 탈락

2위 아마존 3위 알파벳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올랐다. 21일 미국 경제 매체 포천이 공개한 세계 29개국 680개 기업 가운데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018' 순위에서 애플이 11년 연속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평가 항목 9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점 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기업 임원, 애널리스트 39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평가 항목은 각 기업의 혁신, 인사 관리, 자산 활용, 사회적 책임,

품질 관리, 재정 건정성, 장기 투자 가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글로벌 경쟁력 등이다.

애플에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위,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3위에 올랐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와 스타벅스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6위에는 월트디즈니,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 8위 사우스웨스트항공, 9위 페덱스, 10위 JP모건 체이스가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0위까지 순위가 선정됐다.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삼성은 2009년부터 해마다 순위권에 진입했으나 갤럭시 노

트7 발매 사태, 그룹 총수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에도 탈락했다.

아시아 기업에서는 일본의 도요타(29위), 싱가포르항공(32위)이 50위 안에 포함됐다.

뉴스시스

오늘 Lotto 제 790회차 당첨결과 (2018년 1월 20일 추첨)

3 8 19 27 30 41 + 1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6	1,160,516,274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9	52,452,71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17	1,280,39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3,33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12,992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명당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